

# 추사 김정희 미공개 작품 첫 선

### 서울 몽골리 소장품 전시, 12월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추사 김정희·김홍도·고희동·도상봉 등 한국 미술사에 등장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서울 몽골리 소장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오는 12월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몽골리는 신익희 선생의 후손인 신영채 대표가 3년전 인사동에 문을 연 공간으로 이번 전시된 작품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림들이다.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등에서 열린 기획전 등에도 대거가 됐던 작품들이기도 하다.

‘동상동몽(同床同夢) -그림,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45점이 전시된다.

눈길을 끄는 작품은 추사(秋史) 김정희의

미공개 대련 4폭으로 추사와 제자 이상적과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는, 추사가 쓴 기간지가 함께 공개된다. 또 이번 기획전시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호생관(毫生館) 최복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예술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붓으로 눈을 찔러 애꾸눈이 된 후 한쪽 눈으로 그린 ‘관동 팔경첩’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그밖에 이영운·박생광·김용준·김은호·김기창·이용우·서세옥·김병중·도상봉·고희동·장욱진·김홍수·최옥경·이상자·김영주·노은임·문형태·신익희·장순업·심인자 작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신대표는 “고미술을 접할 수 없는 기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서울 코엑스 전시회를 열었는데 호응이 좋았다”며 “고미술에 관심이 많



장욱진 작 '가족'

은 광주 시민들에게도 고미술과 함께 근현대 대표작가들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 전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추사김정희 작 '維愛圖書兼古器'



## ‘윤희에게’ 임대형 감독, 관객과 대화

### 12월 1일 광주극장

영화 ‘윤희에게(사진)’를 연출한 임대형 감독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극장은 12월1일 오후 3시 영화상영 후 임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영화는 지난 14일 개봉해 7만 관객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첫 공개된 이후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우연히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윤희’(김희애)가 있고 지냈던 첫사랑의 비밀스러운 기억을 찾아 설원이 펼쳐진 여행지로 떠나는 감성 멜로이다. 김희애의 내공이 느껴지는 열연과 김소혜, 성유빈의 밝은 에너지, 세상의 모든 ‘윤희’에게 응원과 희망을 전하는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예술가와 시민 어우러져 즐거운 ‘예술파티’

### ‘마법을 걸어봐! -페르소나 파티’, 30일 광주시립미술관

‘예술가와 함께 퍼포먼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진 ‘예술파티-마법을 걸어봐!-페르소나 파티’가 30일 오후 1시 광주시립미술관 로비에서 열린다.

행사의 주제는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 행사는 마스크나 옷 등을 이용한 페인팅과 설치미술, 즉흥 연주로 현대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6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노정숙, 김무화(일본)의 ‘가을 & 공백의 그림자 놀이’ 퍼포먼스는 캔버스 천을 두른 가상의 흰 공간에 그림자를 설정해 테이프로 막은 후 가을 낙엽을 펼쳐놓고 물감과 탁본을 이용

해 공백을 채우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지준의 ‘웃음 페르소나’ 퍼포먼스는 웃음 도자기를 준비해 시민에게 나눠주고 시민과 함께 도자기 주둥이에 입을 대고 함께 웃는 예술놀이이다.

조인자의 ‘Yellow Girls! Yell Oh Girls!’는 아시안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저항하는 퍼포먼스다. 입과 눈을 테이프로 막은 종이탈을 쓰고 노랑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다. 준비된 확성기를 든 시민들은 그녀를 무시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한 후 지나가고, 캔버스에 나란히 마음 얼굴을 그린다.

주리영의 ‘미소 페르소나’는 검정마스크에 웃는 입을 그려 시민에게 나눠주는 행사다. 주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파티가 30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홍의 ‘나는 쓰레기다’ 퍼포먼스는 현수막으로 만든 옷을 입고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청바지를 꺼내 그림을 그린 후 쓰레기봉투에 작가가 들어가는 퍼포먼스로 승지나, 정유진의 즉흥 피아노 연주가 이어진다.

김창호·이은화의 사진 퍼포먼스는 사진과 빈 액자 틀 등을 이용, 설치구조물을 제작설치하고 빈 액자 틀에 웃고 있는 작가와 관객이 얼굴을 내밀고 사진을 찍는 작업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연말엔 공연이죠” ‘프리즌’ ‘라이언 3탄’ 등 다채

연말을 맞아 극단 코스모스가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켈투 정찬우가 만든 코믹뮤지컬 ‘프리즌’이 30일-12월1일 오후 3시 광주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가수의 꿈을 안고 혹독한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돈을 갚기 위해 은행탈이를 준비하다 경찰에 발각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이들은 훗날 현금을 숨겨둔 뒤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 후 교도소를 탈출해 숨겨둔 현금을 찾아 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지만 쉽지 않다.

이어서 1998년 초연 이후 19번째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 ‘라이어3탄-튀어’가 12월14일부터 25일까지(평일 오후 7시30분-주말 오후 3시) 광주5·18기념문화센터에서 펼쳐진다.

소심한 말단 은행원 ‘영호’에게 갑자기 100억 4000만원이라는 큰돈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코미디극이다. 안채우, 장희재, 서장우, 안유민 등이 출연한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준플라잉가족뮤지컬 ‘크리스마스캐롤-스쿠루지가 관객들을 만난다. 12월24일 오전 11시·오후 1시·오후 7시, 25일 오전 11시·오후 2시·오후 4시 광주문화예술 소극장.

늙은 구두쇠 스쿠루지가 유령들을 만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문의 및 예매는 (주)극단코스모스, 인터파크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프리즌’

##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신비의 실체’

### 김이오 개인전, 12월7일까지 금산갤러리

작가가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건 큰 모험이다. 30년 넘게 함께했던 ‘김유미’라는 이름 대신 ‘김이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작업하기 시작한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좀 더 몰입해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마음에 있었다. 새로운 이름 ‘이오’는 전속을 맺고 있는 서울 금산 갤러리와 대화 중 자연스럽게 나왔다. 심오하고 거창한 의미 대신 작품 이미지에 어울리고, 재미있고 다양한 해석과 변환이 가능한 게 마음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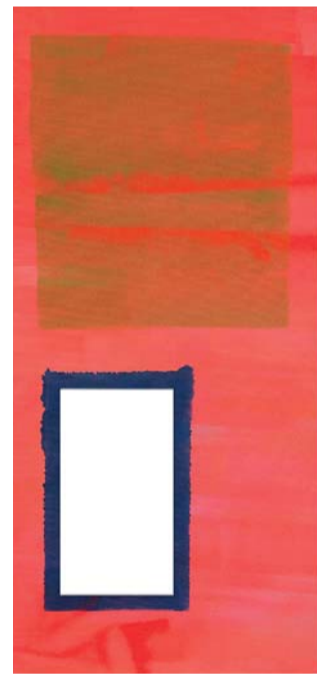
김이오란 이름으로 올해 열린 키아프(KIAF)에 참가했던 그녀가 12월 7일까지 금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신비의 실체(The Truth of Mystery)’를 주제로 진행중인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추상표현주의 작품에 몰두했던 김 작가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고 추상회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동시대성을 담보하는 작품을 탄생시키려 애썼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작들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신비를 경험하는 순간을 담은 작품들”이라고 말한다.

신작 중에서는 프레임만 남기고 가운데를 텅 비운 작품이 눈에 띈다. 이젤 위에 놓인 캔버스 대신 100호 크기의 옥스포드 원단(면천)을 바닥에 깔고 작업을 진행한 이번 작품들은 그 ‘비워둠’으로 인해 훨씬 다양한 해석과 여백을 체험하게 한다. 영상 작품의 ‘시퀀스’처럼 화면

을 잘라내고 붙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냈다. 재료 활용도 인상적이다. 아크릴과 일종의 풀인더를 섞어 써 주체화 느낌을 주기도 하며 모호한 색채의 변화가 이루어져 독특한 느낌을 준다. 빨강·파랑·노랑·초록·분홍 등 신비로운 발색의 일시성과 우연성이 빛어낸 작품들이다.

아트 마이애미와 가오승 페어에 출품하는 김 작가는 현재 해외 전시를 준비 중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나온 김 작가는 199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오사카, 도쿄 등지에서 15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멕시코 시티, 토론토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The truth of mystery’

## ‘누정총서’ 발간 기념 콘서트

### 광주문화재단, 30일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누정총서(7-10권) 발간 기념 콘서트’를 오는 30일 오후 4시 전통문화관에서 개최한다.

누정은 누각과 정자를 일컫는 말로 강학과 교유, 은일의 공간이자 지역공동체 대소사를 결정하고 공동체 규약을 실천하는 집회소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립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 교류하고 활동했는지는 당대 시대정신과 지역문화사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집필자인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희태(전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박명희(전남도 국문과 강사), 전교필(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8권역 매니저)이 참여하며 김신중(전남도 국문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지난해 소재원, 식영정 등 9곳의 누정을 6권으로 엮은 문화재단은 올해 풍영정, 호가정, 마누기정, 부용정, 양과동정, 양파정, 춘설현 등 7곳의 누정을 4권으로 발간했다. 지난해 무등산 자락의 원림과 누정을 다뤘다면 올해는 영산강 자락의 누정과 근대 이후 누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누정총서 발간기념 콘서트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방문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 ‘누정총서(7-10권)를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손흥규 소설가 강연, 12월 1일 일곡도서관

무등문예창작연구회(이사장 문순태)와 생오지 창작촌 동인 글한량이 손흥규(사진) 소설가를 초청해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일곡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연회를 연다.

정음 출신 손 소설가는 이날 강연에서 ‘사연을 쌓는 삶과 글쓰기’라는 주제로 생오지 창작촌 동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문학과 삶을 들려준다. 2018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손 작가는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지금까지 ‘사람의 신화’, ‘봉섭이 가라사대’, ‘툭은 툭과 잣다’ 등 창작집과 장편소설 ‘귀신의 시대’, ‘청년의사 장끼리’, ‘이슬람 정복점’ 등을 펴냈다. 노근리 평화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채만식 문학상,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 앞서 무등문예창작연구회가 주관한 제6회 무등문예 글사랑 공모전 시상식과 생오지 창작촌 동인인 글한량의 첫 소설집 ‘눈향나무아래 피다’의 출판기념회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